

# 전북경제통상진흥원, UAE SRTIP MOU 체결

### 전북 7개사, 중동 시장 IR·SRTIP 연구단지 투어 진행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은 지난 11일 UAE 샤르자에 위치한 SRTIP와 MOU를 체결하고, 전북 기업의 중동 시장 진출과 UAE와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북 스타트업의 중동 시장 진출 지원 △미래 유망 산업 공동 개발 △새만금 관광단지 공동 개발 등 경제협력의 폭을 넓히기 위해 체결되었으며, 양측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MOU 체결에 이어 경진원은 전북 대표 기업 7개사와 함께 SRTIP의 비즈니스 개발 및 마케팅 팀을 대상으로 중



중동 시장 진출을 위한 Private IR(Investor Relations) 행사를 개최했다.

IR 행사에 참여한 기업은 △(주)이나 디인더스트리 △(주)이오레스 △코엔원(주) △(주)사이바이오메디컬 △(주)플라스바이오 △라파라드(주) △(주)정석케미

칼 이상 7개 기업이다.

이번 IR 행사에서 각 기업은 자사의 주요 기술 및 제품을 소개하며 약 3~5분간 발표를 진행했으며, 참석자들과 실질적인 비즈니스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발표에 참여한 전북 기업들은 중동 시장 진출 가능성을 탐색하고, 중동 지역 자본 유치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SRTIP는 경진원 대표단을 위해 주요 연구 및 기술 혁신 시설을 소개하는 기관 투어도 진행했다. SRTIP 측은 이번 투어를 통해 중동 지역 내 연구개발 허브로서의 강점을 강조하고, 양국 기업 간 협력 가능성을 더욱 구체화할 방침이다.

SRTIP(Sharjah Research Technology and Innovation Park)은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 두바이에 이은 세 번째 토후 국인 샤르자에 위치한 중동 지역의 떠오르는 유망 혁신 클러스터이다. SRTIP는 샤르자의 지식 기반 경제 전환을 위한 연구 및 혁신 허브로, 국제 기업 및 스타트업, 학술 기관을 유치하여 글로벌 도전에 대응하고 있다. 경진원은 이번 협력을 통해 도내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중동 시장으로의 진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경진원 윤여봉 원장은 "이번 MOU 체결과 IR 행사가 전북 기업의 중동 시장 진출에 중요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동 지역과의 경제 협력을 통해 전북의 미래 유망 산업을 지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육기 기자



전북농협(총괄본부장 김영일)과 KBS전주방송총국이 공동주최로 하는 '2024 사랑의 김장나눔'을 김관영 도지사, 문승우 도의장 등 400여 명과 함께 12일 KBS전주방송총국 시민 녹지광장에서 진행했다.

## '전국 최고의 쌀밥을 찾아라'

### 전북농협 '2024년 사랑의 김장나눔' 개최

전북농협(총괄본부장 김영일)과 KBS전주방송총국이 공동주최로 하는 '2024 사랑의 김장나눔'을 김관영 도지사, 문승우 도의장, 서거석 교육감, 광미자 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전북도 및 도교육청 배우자와 시군 단체장 배우자, 고향주부 모임(회장 김경리), 농가주부모임(김미자), 비내력 성도경대표와 김영일 전북농협 총괄본부장, 박영관 KBS 전주방송총국장, 전북농협 지역사회공헌단 박병철 위원장 등 400여 명과 함께 12일 KBS전주방송총국 시민 녹지광장에서 진행했다.

이번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는 (주)하림(대표 정호석), 캠프 한국자 산관리공사 전북본부(본부장 하해웅),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회장 한명규), KBS 강태원복지재단, (사)도농상생국민운동본부가 후원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이날 행사는 김장김치 담그기, 김장배추·채소 직거래장터, 축산물 할인판매, (주)하림 시식코너와 함께 쌀소비 촉진을 위한 전북 14개 시군 쌀로 밥을 짓는 '전국 최고의 쌀밥을 찾아라'를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오만호 기자

## 농촌진흥청, 이색 단감으로 경쟁력 키운다

### 신품종 촉진 생산단지 조성, 다양한 품종 시장 출하 유도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매력적인 맛과 식감을 지닌 우리 단감 대표 품종을 소개하며, 소비자 입맛과 농가 요구에 부응해 산업 경쟁력을 키워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 주요 과일 재배지 전방을 보면, 단감은 내륙지역에서 재배 면적이 지속해서 늘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응하려면 품종 다양화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특정 품종 편중 현상이 심하다. 실제, 재배 단감의 79%는 일본서 도입된 '부유'이다. 농촌진흥청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 품종과 차별화할 수 있는 다양한 국산 단감 품종을 개발 보급에 힘쓰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감풍', '봉황'이다.

농가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감풍'은 현재(2023년 기준) 우리나라

개발 품종 가운데 제일 넓은 면적인 354헥타르(ha)에서 재배되고 있다. '노란빛의 봉우리'란 뜻의 '봉황' (2019년 육성)은 달걀처럼 뾰족하게 생긴 단감으로 열매 모양에서부터 기존 품종과 차별화된다. 과육이 아삭아삭하고 연하며, 껍질이 얇아 그대로 먹기에 좋다. 특히 연화된 뒤의 식감이 기존 단감처럼 무르지 않고 쫄쫄렁렁 밀렁하면서도 탱글탱글해서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단감 '감풍'과 '봉황' 등을 빠르게 보급하기 위해 2021년부터 경북, 전북, 전남 3개 지역에서 신 품종 이용 촉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부터는 순천, 진주, 창원 등 7개 지역에서 주산지 현장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올해는 창원, 고흥, 영암 3개 주산지와 '감풍' 전문 재배



단지 조성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품종 보급 사업이 호응을 얻고 맞춤형 재배 기술이 투입된 전문 재배단지 조성이 완료되면 안정적인 품종 보급과 고품질화로 농가 수익 증진은 물론, 국산 단감의 생산 기반 확대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박정관 원예작물부장은 "단감 산업 발전의 필수 요소는 △우수한 품질 △기존 단감과는 다른 새로운 △기능성 강화 △수확기 확대 △병 저항성"이라고 전했다. /김육기 기자

## 송호석 전북환경청장, 군산시 도시침수 예방사업 현장 방문

송호석 전북지방환경청장은 12일 집중호우를 대비하기 위해 시행중인 '군산시 산북배수분구 도시침수 예방사업' 현장을 방문했다.

송 청장은 군산시 소룡동 배수 펌프장과 산북동 사업 현장을 방문해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로부터 사업 현황을 보고받고 도시침수 대응 사업을 점검했다. 군산시 도시침수 예방사업은 산북·



중앙·금암·경포1 배수분구에서 2005년까지 총 4단계 사업으로 추진된

다. 현재 산북배수분구에서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서 2018년에는 금암배수분구 등에서 1단계 사업을 완료하였다.

송 청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해 도시침수 대응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육기 기자

## 바이오진흥원 전북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

### 부산국제수산물엑스포 현장 계약 3억4천만 성과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전북해양수산창업투자지원센터는(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 지난 8일부터 8일까지 3일간 진행된 2024 부산국제수산물엑스포에서 전북공동관을 운영했다.

부산국제수산물엑스포는 국내 최대 규모이자 25개국 420개 업체 및 기관이 참가하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수산 종합 전문 무역박람회로 바이오진흥원은 도내 수산식품 기업들의 우수성을 보여주기 위해 전북 공동관을 기획하여 행사에 참가해 국내외 판로를 찾고 있는 도내 수산식품 기업들에게 우수성을 뽐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도내 수산식품 기업 8개사와 함께 전북공동관을 운영한 바이오진흥원은 "수산식품군을 선보이며, 현장 계약 및 판매실적 약 3억 4천만원의 성과를 달성하였고 국내외 바이어들과의 후속 협상 결과에 따라 추가 계약 및 수



출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

특히, 부안의 봉선장(수산물, 절임류)은 해외 바이어들의 뜨거운 반응에 힘입어 현장계약 2건, 약 3억 4천만원의 성과를 이루었고, 군산의 진성식품은 바이어 상담회에 힘입어 미국, 일본 등 여러 바이어들에게서 샘플 요청이 쇄도했다.

행사에 참가한 한 기업 대표는 "부산국제수산물엑스포 전북공동관에 참가하여 국내 판로개척은 물론 해외 바이어들과의 미팅까지 할 수 있어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신 바이오진흥원에 감사한다"고 밝혔다. /김육기 기자

JB고객님 5레5레 특판예금 3.32% ~ 3.52% 전북은행

전은, 창립 55주년 'JB고객님과 5레5레 특판 예금 출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이 창립 55주년을 기념하여 고객감사 이벤트 우대예금을 제공하는 'JB고객님과 5레5레 특판 예금'을 12월 출시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31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하는 이번 'JB고객님과 5레5레 특판 예금'은 가입기간을 6개월과 12개월로 세분화했다. 6개월에 최고 연 3.52%(기본금리 연 3.32%), 12개월에 최고 연 3.32%(기본금리 연 3.12%) 금리를 제공하며, 총 판매한도는 3,000억원으로 판매한도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가입대상은 개인 및 개인사업자, 일반법인으로 가입액은 계좌당 100만원 이상 고객당 20억원을 한도로 한다.

개인고객은 해당 예금 가입 시 마케팅 활용에 동의하면 우대금리 연 0.2% 법인고객은 해당 예금 가입고객 전원에 우대금리 연 0.2%가 제공된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창립 55주년을 맞아 전북은행 고객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정기예금 특판 상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만호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